이제 새 날이 밝았다

경차시장의 절대 강자

굿 모닝, 마티즈 게 섰거라

● 경차시장 경쟁 점입가경

올 들어 국내 자동차시장에 거센 '경차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달부터 기아차 '모닝'이 경차에 편입되면서 GM대우차의 '마티즈'가 독주하던 경차시장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는 것이다.

특히 '모닝'은 다양한 '경차 혜택'을 등에 업고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경차의 '지존'으로 군림해온 '마티즈'를 위협하고 있다. 현재 '모닝'은 최대 2개월 가량을 기다려야 차량을 인도받을 만큼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고유가 속 경차 판매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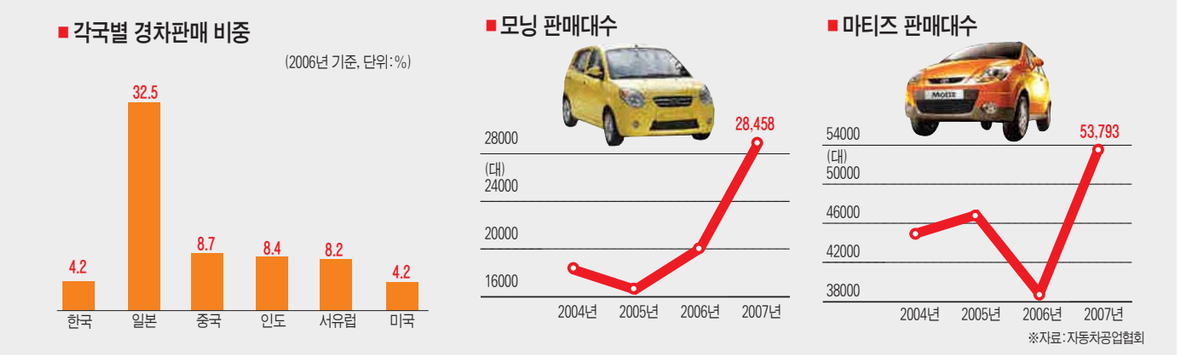
올해 경차 돌풍은 '모닝'이 주도하고 있다. '모닝'은 경차 편입 직전인 지난해 2만8천458대가 판매돼 2006년(2만350대)에 비해 판매량이 38% 증가했다.

특히 지난 1월엔 2만751대가 한꺼번에 계약됐고, 이 가운데 7천845대가 출고될 만큼 인기 몰이에 한창이다.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마티즈'의 판매량도 동반상승하고 있다. '마티즈'는 지난해 총 5만3천793대가 판매돼 2006년(3만9천230대)보다 37% 늘었다.

또 1월에만 3천226대가 판매된 데 이어 최근 100만원에 달하는 가격 인하를 단행함에 따라 향후 출고량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모닝'이 기존 '마티즈'의 시장을 잠식하기보다는 전반적인 경차시장을 확대시킨 셈이다.

경차는 저렴한 유지비 외에도 다른 차종에 비해 혜택이 많다. 취득세(출고가의 2%)와 등록세(5%)가 면제되고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할 의무가 없다. 고속도로 통행료와 혼잡통행료, 공용주차료 등도 50% 할인된다.



성능은 '모닝', 경제성은 '마티즈'

'모닝'은 고성능과 경제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차체 크기와 배기량만 따지면 소형차에 가깝지만, 경차 편입 이후 구입시에만 100만원의 세금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또 '모닝'은 같은 연료비로 '마티즈'보다 쾌적한 주행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행안정성이나 동력성능이 월등한 데다 엔진소음도 '마티즈'에 비해 적다.

다만 최근 '마티즈'가 차값을 50만원 가량 내리고 최대 100만원의 할인혜택을 주는 바람에 마티즈보다 170만~200만원 가량 가격이 높아진 게 흠이다.

실제 '마티즈'를 구입할 경우 '모닝'에 비해 10개월 정도의 기름값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 구입 초기 2만km를 주행할 경우 두 차종 모두 공인연비(16.6km)를 대입하면 연간 연료비가 200만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마티즈' 가격 인하…편의장치 경쟁도 가열

'모닝' 공세가 날로 거세지자 '마티즈'는 가격 인하 등 경제성을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GM대우차는 이달 초부터 '마티즈'의 가격을 최대 53만원 인하했다. 또 이달 말까지 에어컨(51만원)과 후방 주차보조 센서(11만원)를 무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은 최대 115만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마티즈' SX 모델에 자동변속기를 추가하면 총 차값은 790만원이 된다. 반면 비슷한 편의장치를 갖춘 '모닝' LX 고급형 모델은 963만원이다. 서로 편의장치가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을 감안해도 150만원 가량 '마티즈'가 저렴하다.

이와 함께 두 모델 모두 다양한 편의장치를 갖추고 있다. 운전석 에어백은 기본이고, 후방주차센서, 파워윈도, 열선 내장 아웃사이드 미러까지 장착돼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5월 유류세 인하…경차 8%시대 열리나

경차시장 급성장 효과 'LPG'까지 나오면 가속

현재 국회에서 추진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관련,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경차시대'가 열릴지 주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르면 5월부터 경차 운전자들은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ℓ당 300원을,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선 kg당 360원씩 감면받게 된다.

국내 수요자 가운데 대부분이 자동차 구매의 주요 판단 기준으로 차량 유지비를 꼽고 있는 만큼 유류세 인하는 향후 경차시장 급성장에 적잖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현재 5.5% 수준에 그치고 있는 국내 경차시장이 유류세 감면을 계기로 급성장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내년 하반기에 'LPG 경차'까지 등장할 경우 경차의 인기는 더욱 치솟을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최근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LPG 경차의 생산 및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 소비자들은 중형차를 선호하기 때문에 경차가 상대적으로 외면받아 왔다"면서 "하지만 유류세 감면 등이 시행되면 경차 비중이 서유럽 수준인 8%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